

# 광양시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하세요”

### 해수온 상승으로 감염 위험 상승 어패류 익혀 먹고 5℃ 이하 보관 위생 관리·예방수칙 준수 당부

‘어패류 85℃ 이상 익혀서 섭취, 손질할 땐 장갑 착용, 5℃ 이하에서 보관’  
올해 해수온이 예년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특히 7~8월에는 평균보다 1도 이상 높은 수온이 예측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이다. 이 균은 해수·갯벌·어패류 등 연안 해양 환경에 서식하며, 수온이 18℃ 이상으로 오르면 급속히 증식한다.

감염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할 때, 또는 상처가 있는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오한·복통 등이며 감염 후 24시간 이내 하지 부위에 발진이나 부종 등 피부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패류는 5℃ 이하에서 보관하고, 손질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조리 후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소독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로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 피부에 상처

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바닷물에 노출됐을 경우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내야 한다.  
광양시는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조사의 일환으로 광영, 초남, 망덕포구 등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해수 검사를 시행 중이며, 어패류 취급업소의 수족관수에 대한 균 검사와 위생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박양숙 광양시 보건행정과장은 “어패류 섭취나 해양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간질환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해수 및 수족관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물놀이장.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운영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이 오는 25일 임시 개장한다.  
개장될 물놀이장은 내달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1만㎡에 달하는 부지에 조성된 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은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조합 놀이대 5개와 짜릿한 스릴로 더위를 잊게 할 최장 79m의 워터 슬라이드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또한 잠시 쉬어가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와 샤워실, 물품 보관 및 대어 등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번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은 임시 개장으로 곡성군민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타지역 관광객의 경우 기차마을 입장료를 지불하면 기차마을과 물놀이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워터 슬라이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민과 관광객 모두 3회 기준 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 남도사랑 구례군 봉사단 취약계층 40가구 반찬 나눔 자원봉사

구례군 자원봉사단체 남도사랑 구례군 봉사단이 지난 17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김치 곁절이, 장조림, 고추장볶음, 오징어 젓갈무침, 말랑콩조림 등 5종의 반찬과 김, 음료를 직접 준비해 40가구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동일한 방식의 반찬 나눔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연속된 두 차례 활동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오색반찬에 오



색미소를 담다(온정 나눔)’가 선정되어 추진됐다. 김복순 봉사단장은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자원봉사자들이 더 큰 위로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남도사랑 구례군 봉사단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에 감사드리며,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치유쉼터 재탄생 순천 큰고니 복원습지 연꽃 만개

### 생태복원 시민·관광객 볼거리 제공

순천 큰고니 복원습지에 여름 연꽃이 만개했다.  
순천문화관에서 무진교 방향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큰고니 복원습지는 2024년 국가 유산청 국비 지원을 받아 기존 농경지 2만5000㎡를 생태복원형 습지로 전환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연뿌리 3300주가 식재돼 수생생물과 철새의 먹이원 및 서식지로 조성됐다.  
연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해 현재는 습지를 가득 채운 연꽃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생태경관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치유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만은 매년 겨울 천연기념물 제20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국제적 보호종 큰고니의



순천 큰고니 복원습지에 핀 홍련.

주요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큰고니는 새싹매지기나 연꽃의 알뿌리 등을 먹이로 삼는 겨울 철새로, 올해도 순천만 일원에 많은 개체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조류 전문가는 연꽃 복원습지를 둘러본 뒤 “내가 큰고니라도 이곳에 살겠다”는 말을 남겼을 만큼 먹이 자원과 경관, 생태적 안정성이 뛰어난 서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고흥군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고흥군이 지난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주요 조사 중 하나이다.  
조사는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식이며 먼저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단순한 인구 파악을 넘어 주민 복지,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허위 또는 부정확한 등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정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보성군,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방제 추진

보성군은 본격적인 벼 생육 시기를 맞아 병해충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집중 방제 지원에 나선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의 최근 예찰 결과에 따르면 벼멸구가 평년보다 약 18일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비래해충의 급속한 번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방제가 늦어질 경우 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벼멸구·흑명나방 등 쌀 수량과 품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은 기본 방제 기간 동안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살균제·살충제의 적정 혼용 사용과 적기 방제 실천을 적극 당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SNS,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상재해 대응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을 통해 5656농가, 총 6703ha 면적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GFA 보험GA협회